



보도 일시	<전매체> 즉시 배포	배포 일시	11.21.(목), 8시
-------	-------------	-------	---------------

담당 부서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전략기획팀	책임자	팀 장	강철형 (032-310-7510)
		담당자	사업담당	박성민 (032-310-7511)
배포 부서	홍보전략팀	책임자	팀 장	김민철 (044-300-0720)
		담당자	주 임	김셋별 (044-300-0721)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2024 한-덴 의약바이오 & CMC 혁신 기술포럼 성료

- 전문가 포럼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양국의 협력 방안 제시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단장 한인석, 이하 추진단)은 덴마크 바이오협회(사무총장 요르겐 올슨, 이하 Dansk Bio), 한국 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과 공동 주관으로 20일(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한-덴 의약바이오 & CMC 혁신 기술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협력을 통해 CMC 분야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형식 회의로 진행되었다.
- ‘제약바이오 혁신 및 의약품 개발·제조를 위한 글로벌 협력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CMC 전문가, 바이오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본 행사는 각 주관사 대표와 주한 덴마크대사 대리의 환영 인사로 이어졌다. 기조연설자로 주한 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ICDK) 디테 바이스(Ditte Rønde Veise) 센터장이 ‘덴마크 바이오텍 생태계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 양국의 전문가 포럼발표에서는 덴마크 전문가대표로 요르겐 올슨(Jørgen Godt Olsen), Dansk Bio 사무총장 겸 NCK A/S 부회장의

‘합성의약품에서 아웃소싱의 비결’, 프레드릭 레만(Fredrik Lehmann), Sound Bioventures EIR의 ‘바이오제약 부문의 초기 투자 준비 방법’, 바비 소니(Bobby Soni), BioInnovation Institute(BII) CIO의 ‘덴마크 바이오텍의 투자 혁신’, 헨릭 블로우(Henrik Blou), Gubra CEO의 ‘전임상 설계의 중요성’ 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 또한 한국 전문가대표로는 김종훈, 애플론 CTO 겸 부회장의 ‘품질과 규정 준수를 위한 자동화 제조 방법을 활용한 CAR-T 치료제 개발’, 황유경 CTX 대표의 ‘Off-The Shelf Product : CAR-NK 개발 시 고려 사항’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과 덴마크 기업 간 CMC와 바이오제약의 글로벌 협력 가능성’에 대한 패널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양국의 CMC 전문가, 바이오제약 리더, 규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CMC 문제 해결 및 새로운 기회 창출 방안’을 주제로 노하우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단 한인석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CMC 관련 최신 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의약바이오 기업 간 긴밀한 협업 촉진 및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KIMCo 허경화 대표는 “덴마크는 글로벌 신약개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만큼 향후 양국 기업 간 CMC는 물론 신약 연구 개발, 투자 등 다각적 분야로 실질적인 파트너십 기회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기획팀 박성민 담당자 (☎ 032-310-75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사진 1]에 대한 설명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한인석 단장(첫째줄 왼쪽 다섯 번째)과 KMCo 허경화 대표(첫째줄 왼쪽 세 번째)가 기술포럼 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2]에 대한 설명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한인석 단장이 한-덴 양국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